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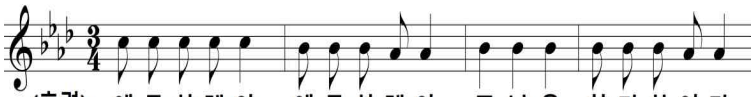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김 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 효주 (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 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신명기 8,2-3.14ㄴ-16ㄱ



화답송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시온아, 네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네 성문의 빗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네 안에 사는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
○ 주님은 네 강토에 평화를 주시고,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당신 말씀 세상에 보내시니, 그 말씀 빠르게도 달려가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1코린토 10,16-17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복음 | 요한 6,51-58

성가 | 입당성가 [169]
예물준비 [217]
영 성 체 [169]
파견성가 [200]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김춘원 베드로	린다김 데레사
주악이 데레사	김승애 클라라
유혁일 헨리	가족
권혁천 파비아노	이민재, 권순재
이지니, 조성태, 박윤권	박승찬
박완양, 임규완	박승찬
김화자 소화데레사	김영숙 카타리나

생미사	봉헌
송미령	송명자 리디아
송승훈 어거스틴	송준호
송승연 세라	송준호
민경록 로이드	유정옥 유스티나
정루하 프란치스코 첫영성체	박크리샤
김수열 앤토니 영명축일, 생일	가족

[제2독서 후 부속가] : 성체 송가

21.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22.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23.참된음식 착한목자 주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24.전지전능 주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교리	*신청:사무실

▶영명일 축하드리며 함께 기도드려요~

6.1 유스티노 6.5 보니파시오 6.9 에프렘 6.11 바르나바
6.13 파도바의 안토니오 6.15 젤마나 6.16 루갈다 6.19 로무알도, 율리아나 6.21 알로이시오 6.22 토마스모어 6.24 세례자요한
6.27 치릴로 6.28 이레네오, 마르셀라 6.29 베드로, 바오로

▶주일 미사 직후 친교실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연령회 모임

아래성당: RIP 유혁일 헨리 영혼을 위한 연도

▶첫 고해성사 안내

일시: 6/18(일)까지 매주일 8:30am부터
장소: 아래성당 고해소, 대상: 4/30 세례성사 받은분들
*첫 고해는 세례후 교회의 깊은 관심속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전례입니다. 교우분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6월 16일(금)은 사제 성화의 날입니다. 모든 사제들과 특별히 본당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시는 김진열 가롤로 신부님을 기도중에 기억합시다. 모든 사제들이 예수 성심을 닮은 착한 목자로서 살아갈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바자회 경품 확인 및 수령안내**

6월 18일(주일)까지 사무실에오셔 수령하지 않는 상품은 무효처리 됩니다. (오현아, 김린다, 김진섭, 최정현, 차로사)

▶ 2024년 부활절 세례,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교리첫만남: 2023년 10월 1일, 교육관 3A
세례일: 2024년 3월 30일(토)
일시: 매주일 오전 11시. 문의: 김효주 수녀 347.834.5784

"저는 제 주변에 **가톨릭에 입교를 권할 분**을 관심있게 보며 그분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또한 저는 **쉬는 교우**들을 만날 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겸손한 말씨와 태도로 대하며 그분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성모의 밤 선교봉헌카드 내용 중에서〉

▶예수 성가정회(FYMMY)회장 및 회원모집

젊은 부부들이 주님안에서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행복한 성가정을 이루도록 돕고 의지하는 모임입니다.
문의: 청년분과장 강토마스 310-413-1653 카톡: kangkenny

▶2023 청년성서모임 봄학기 그룹원모집

대상: 가톨릭 세례받은 청년
모집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마감: 6/18(일) 문의: 201-912-7577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 모집

피아노 전공하신 본인, 또는 주변의 지인중에 추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의: 지휘자 646-696-4680

▶주일학교 교사모집 문의: 사무실

▶성경공부

목요반	목 10:10am-11:30am	효주 수녀
주일반	6/11(일) 1pm-2:20pm	

▶교우분들은 미사전 독서와 복음 읽기에 참여합시다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당신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미사경본 총지침).

미사전 독서와 복음을 미리 읽고 미사에 참례하면 말씀의 식탁에 풍성하게 차려진 말씀의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살과 피가 됩니다.

▶전례봉사자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 지향	성찬 봉사	복사
6/11	백이백 아오스딩	김규헌 프란시스코	정유진 콘솔시아	정유진 콘솔시아	김종선 비비안나	이유채아멜리아 최예준사도요한
6/18	이지훈 아녜스	송명근 대건안드레아	김애희 테클라	김애희 테클라	민덕미 안젤라	양지수글라라 이유채아멜리아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2. 온라인 주보의 경우, 하단의 〈우리들의 정성〉 코너는 삭제되며, 성당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인쇄본 주보에만 게시됩니다.
3. 우편으로 체크를 보내실 경우, 보내실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송금 후 수녀님 전화 : 347-834-5784 로 연락 바랍니다.
4. "기부" 버튼을 클릭하시면, 한인공동체 교무금이 아니라, 미국본당을 위해 사용됩니다.

A. 체크로 보내실 경우 - 수취인은 꼭 써 주세요.

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체크 보내실 주소 : Carolo Kim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B. 온라인으로 보내실 경우

Scan in your banking app to pay
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Zelle QR code: Zelle ID: stfranciskctr.org@gmail.com

Zelle

stfranciskctr.org@gmail.com

Zelle 송금시 Memo 란에 이름, 세례명, 전화번호, 해당 월을 기입합니다. 2주후 주일 주보에 기재됩니다.

지난 주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Cash $ 1,180 이영애 김택영/김혜숙 윤요한 배옥희 송명자 고은경 유정옥 백승민/진달래 한창희 박성현 피터허 황아그네스 박형규
	Check $ 600 임영애 송준호 셀리나해지스 송명근
특별 헌금	$ 850 홍정자 주이비 셀리나해지스
합 계	$ 2,630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더큰집
TEL. 212-564-8238

HANBIT TOUR, INC.
한빛여행사
Mary Lee
1270 Broadway #303 (32 St.- 33 St.) New York, NY 10001
Tel : 347-840-2112
Fax : 212-631-8070
hanbittour@gmail.com

백승민
이민법 변호사
IMMIGRATION ATTORNEY
TEL. (551) 335-8868
EMAIL. EMIN@BAIKLAW.COM

CHA PHYSICAL THERAPY
차 물리치료 | 침치료
16 W 32nd St. #1007, New York, NY 10001
212-643-9326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Hair City Elegance
교우분 환영합니다.
45-38 Bell Blvd. Bayside, NY 11361
데레사 718-423-494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WONJO
New Wonjo
212-695-5815

2023 성모의 밤

윤숙자 루시아-구세주의 모친 꾸리아 단장

5월 26일 밤 8시, 성모의 밤 전례가 대성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전례에 참석한 모든 교우들은 일생을 당신 아드님과 함께 걸으신 성모님을 기리고,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봉헌하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열린 성모의 밤에, 교우들이 올리는 묵주기도 한구슬, 한구슬은 아베마리아 성가와 함께 대성당에 울려퍼졌습니다.

특별히 올해 성모의 밤 중에는 〈선교카드〉를 각자 준비하여 성모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이 예식을 통해 내 '주변에 가톨릭에 입교를 권할 분'과 '쉬는 교우'를 신앙의 눈으로 관심있게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형식적이고, 외적으로 화려한 성모의 밤 신심행위에 치중하기 보다는, 성모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내적 복음정신과 실천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참여자가 서로 손을 얹어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은 믿음과 사랑의 고리로 연결됨을 체험하는 감사로운 밤이었습니다.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선교카드 내용중에서〉
"저는 제 주변에 가톨릭에 입교를 권할 분을 관심있게 보며 그분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또한 저는 쉬는 교우들을 만날 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겸손한 말씨와 태도로 대하며 그분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